

관광하며 김장하며...강진 맛에 '군침'

군, 수도권 관광객 대상 푸소 체험·묵은지 담그기 등 색다른 재미 선사

강진군이 관광과 걸쭉한 묵은지를 혼합한 여행 콘텐츠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은 지역 관광과 강진 묵은지를 연계한 새로운 여행 콘텐츠를 발굴, 관광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강진군은 지난 27~28일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진군 관광과 푸소(FUSO) 체험, 김장하기를 겸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푸소란 필링-업(Feeling-Up), 스트레스-오프(Stress-Off)의 줄임말로 농촌집(푸소체험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훈훈한 정과 감성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강진 농특산물과 관광을 함께한 신규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00여 명의 가족 단위 관광객은 27일 강진을 방문해 월남사지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농가에서 숙박하며 농촌의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했다.

28일에는 강진 사의재에서 집에서 먹어 김치를 직접 담그고, 수육과 막걸리를 함께 즐기며 즐거운



지난 28일 강진 사의재에서 집에서 먹어 김치를 직접 담그고, 수육과 막걸리를 함께 즐기는 김장 체험행사가 열렸다. <강진군 제공>

시간을 가졌다.

김장에 필요한 배추와 양념은 '강진 묵은지 사업단'에서 직접 준비해 관광객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강진 묵은지 요리법을 전수했다.

담근 김치 절반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묵은지 숙성을 위해 사업단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원하는 날

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음식 등 즐길거리가 많은 남도답사 1번지"라면서 "강진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흥군, 약용버섯 '복령' 첫 수확

7곳 고소득 작목 시범재배 중...군, 묵이·윤지도 실증시험 진행

장흥군이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한 약용버섯 '복령'을 최근 첫 수확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 2년간의 실증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초 복령 재배 희망농가 7곳을 선발해 시범재배를 추진했다.

한의학연감에 의하면 복령은 국내 10대 소비 한약재 중 하나로, 도매시장에서 600g당 2만원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는 고소득 임산물이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복령 재배 희망농가에 종균, 자목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기술지도와 경영 컨설팅을 실시해 종균접종 당해 연도에 복령을 수확하는 성과를 올렸다.

내년에는 올해 시범재배의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해 재배면적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관계자들이 올해 시범재배를 통해 첫 수확한 복령을 들여보내고 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복령 외에도 묵이, 윤지, 동충하초 등 다양한 약용버섯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303억 지급

이달 말까지 1만4445농가 ... 2차분 이의신청·검토 후 12월 중순까지

나주시는 이달 말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 2년 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아 대상농지 및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대상 농가·농업인 1만4650여명을 확정했다.

총 지원규모는 310억원, 대상 면적은 1만5315

ha이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로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농지별로 기준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4735농가에 57억원을, 면적직불금은 9710농가에 246억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1차분에 해당하는 1만4445농

가에 303억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간역 대상자 등 이의신청을 접수, 검토해 2차분은 12월 중순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가능 유지, 농약 등 안전 사용 준수 등 17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과 폐경 면적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총 금액의 10%를 감액하고 직불금을 지급한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과 집중호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농가의 영농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금이 중소규모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송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장성호 미락단지 '장어 특화거리' 조성 마무리

군, 요리 개발·경관 개선

장성군의 대표적인 치유 여행지 장성호 수변길이 '장어 정식 요리'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19년 남도음식거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성군은 장성호 하류 지역인 미락단지에 '장어정식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 최근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미락단지는 민물고기 요리로 유명한 곳이었다. 민물고기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는 비결로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은 곳이기도 하다.

군은 이러한 특징점에 주목하고, 건강에 좋은 '장어'를 접목시키기로 했다.

잡내 없이 담백한 맛을 지녀 남녀노소 누구나 식도락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가격대는 1인 기준 1만 7000~8000원으로, 장어 구이와 탕이 함께 나와 푸짐하다.

군은 장어정식 메뉴 개발과 함께 주변 경관 개선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장어정식 특화거리를 나타내는 벽화를 조성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장복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장성호 수변길과 미락단지 방문객들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했다.

최근에는 장성호와 미락단지를 잇는 장복교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인도(人道) 공사를 시작했다. 인도는 폭 2m, 길이 121m로 바깥 매탈기 공법을 적용해 시공하게 된다.

군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은 도로관리청인 전남도에서 부담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미락단지가 장성의 '새로운 맛'을 널리 알리는 명소가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주차장 조성 등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2022년도 벼·옥수수 종자 신청 접수

담양군이 2022년도 정부보급종 벼 종자를 다음달 20일까지, 강원도산 옥수수는 오는 17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7품종으로 총 128.8t(새청무 70.8t, 신동진 47.5t 등)이며 전량 미소독 종자로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되고, 종자 20kg 한포대당 1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옥수수 종자는 용도에 따라 찰옥수수, 종실사료용, 팝콘용으로 신청을 받으며 찰옥수수는 3품종(미백2호, 흑점2호, 미흑찰)으로 신청물량

전량이 공급 가능하며 가격은 2만6000원(1kg/봉)이다.

종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읍·면 농업인 상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벼 보급종은 정부에서 생산·공급하므로 종자의 순도가 높고, 품종 고유의 특성이 보존되며 발아율이 높으므로 보급종을 사용해 '대슬팜은 담양쌀'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향적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